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
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
쭉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
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
당자 알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527호

서기 2005년 5월 25일
(음력 4월 18일) 수요일

29

법공양 페이지

모든 걸 들어오는 대로 바다와 같이 집어삼켜라

공부를 더 잘하고 싶은데

문 저는 우연히 스님에 관한 책을 보고서 감명을 받아 선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 중에 스님의 말씀대로 공자리에 되돌려놓는 작업을 5년 이상 열심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부도 잘되지 않고 머리가 육신육신 아파서 병원에서 침도 맞고 약도 먹고 있는데 전혀 차도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돌려놓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가르침 바랍니다.

답 나는 부지런히 공부해서 깨우치겠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해요. 빨리 해야겠다 하면 빨리 하겠다는 대로 가슴이 답답하게 돼 있어요. 또 그곳하면 그곳한 대로 게으른 생각이 들어가서 답답하구요. 그러니까 양면을 다 놓으란 말입니다. 물 흐르는 그대로, 물 흘러가는 것같이 그렇게 살란 얘기지요.

어느 게 들어와도 물러서지 말고 더러운 게 들어와서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하지 말구요. 흙들이든 고름들이든 핏들이든 오물이든 모든 걸 들어오는 대로 그냥 집어삼킬 수 있다면, 바다와 같이 집어삼켜라 이거예요. 그러면 편안해요. 악도 집어삼키고 선도 집어삼킨다면 그렇게 자유스러울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자유가 있다는 이런 말이에요.

다 놓는다면, 욕심도 놓고 모든 걸 다 놓는다면, 놓으라고 해서 아주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수억만 냥을 쓴다 하더라도 그걸 놓고 써라 이거예요. 내가 쓴 게 아니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울바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출연히 다 받게 하시려면 화두를 친다는 생각도 말고, 놓는다는 생각도 말고, 좌선을 한다 생각도 말고, 좌선을 안 한다,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것이 그대로 내 주인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아프게 들어오는 것도 주인만이 낮게 할 수 있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그대로 주인의 심부름이에요. 내고 들고 하는 것이 다 주인으로 인해서 나간다면 여러분이 병고에 휘달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30%는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는 거라면, 70%는 자기가 거기에다 총망해서 나간다면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내가 죽을 때 되면 죽겠지요. 안 그래요? 옷 벗을 때 되면 벗겠지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나간 고통을 그렇게 안 받고도 갈 수가 있지 않느냐. 공부하는 데 실패할 때는 거기에서 별의별 게 다 나와서 어떠한 뭐가 닦쳐다 거기다 되인력 하는 그 자세로써 나간다면 여러분은 얼마 안 있어서 내면에서 울바로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말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학식을 배우고 모든 걸 다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한 가지의 그 뜻을 찾지 못하고 개발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으니 이런 게 옳다 저런 게 옳다, 이걸 빨리 해야겠다 하는 욕심은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봐야 미지수의 우주 세계의 그 하나에 내가 더불어 같이 들 수가 있는 거지 아니 내가 오게 틀리고 요건 좋다고 하면서 내 마음이 그래 가지고 몸뚱이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하다 보면 그 미지수의 세계에 내가 한데 합쳐져서 어떻게 들어가 보겠습니까? 마음이 움직거리면 몸도 움직거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갔다 오고 그러는데 삼천 년이 걸린다, 이러는 게 한 할나예요. 삼천 년을 만약에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한다면, 아니 삼천억이라고 하더라도 미세한 티끌 수와 같이 그렇게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 생각이면 그냥 다 맞붙어 버려요. 그래서 과거를 전부 알게 되고 미래를 알게 되고 현실을 알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도 말고 더디 해야겠다는 생각도 말고 오직 믿는 게! 수많은 억겁을 거치면서 자기를 형성시킨 자기 참, 자기 장본인을 진자로 믿어라 이겁니다.

회사를 개업하려는데

문 항상 높으신 법문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사 개업하려고 하는데 고사를 지내야 하는 것인지요. 만일 지낸다면 준비와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스님의 항상 건강하심을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 어떤 회사를 하더라도 화목재를 한 달에 두 번을 지내든지 한 번을 지내든지 지내시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고사라고 하고 모두 지냈는데 그게 고사가 아니예요. 화목재라는 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기계의 마음들이나, 보이지 않은 마음들이나 보이는 마음들이나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떡이라도 썰어 놓고 음료수나 과일이라도 좀 사다 놓고 그렇게 해서 같이 화목하게 얘기를 주고받는 겁니다. 또 일하는 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아주 꺼끌꺼끌했던 것도 다 녹아지고 모두 일을 내 일처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산 사람의 화목재지 뭐냐 이런 소립니다. 하나의 마음이 뺨들어지면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재를 지낸다 하는 것도 그것이 결국은 화목재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거구요.

여러분도 어려웠던 시대를 지나보셨으니깐 아시리라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층 더 합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을 자기 그릇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한번 그 사람들 그릇을 쫓아가 주는 것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면 자식도 그렇게 따라갈 것이고, 부모가 그렇지 못하면 자식도 그렇지 못하게 따



그림 · 최주현

수없는 억겁을 거치면서 자기를 형성시킨

자기 장본인을 진자로 믿어라!



그림 · 최주현

라갈 것입니다. 그게 자식이 아니라 즉, 자기입니다. 자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모자란다고 하면 뒤를 돌아다보고 앞을 내다보고 이끌어야 하는데, 자기는 돌아다보지 않고 그냥 그 차원에서 막 내드린다 말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가친척이라도 그렇고, 친구라도 그렇고, 사업을 한다면 직원이라도 그렇고, 자기가 하는 대로 그 차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끌어 줄 수 있는 마음, 한 생각을 내는 데 잘 내게끔 이끌어 주는 선배가 되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홍보입니다. 가정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렇게 한 생각을 잘 내는 게 아주 중요하죠.

어떤 분이 공장을 하는데 공장에서 자꾸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손가락도 부러지고 손목도 다치고 그래서 이익이 남질 않고

자꾸 그런 데로 돈이 빠지고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다고 하길래 새로 들여놓은 기계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모두가 한마음으로서 한 주인이 모든 것을 운영을 하는 거라고 한번 진자로서 믿고 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믿고 기계도 사람도 들어오니까 동글리면서 화목재도 지내면서 점점 잘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감사재라는 것을 화목재라고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초하루나 보름에 떡을 해서는, 떡도 요즘은 맛이 없어요. 떡을 게 너무 많아서요. 그러니까 기증떡 보퉁보퉁한 거 크게 한 서너 개 하고 물 한 그릇 떠 놓고 향과 초 쯤 놓고선, 그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계 하나도 빠짐없이, 사람의 마음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한마음으로서 구성되게 하라고 감사재를 지내고 화목하게 그 자리에 앉

계율과 깨달음에 대해서

문 다른 스님들은 계율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스님께선 계율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법문 중에서 조금씩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계율과 깨달음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여쭙 보고 싶습니다.

답 계율이라 하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계율이 있는 것인다는데,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벌써 상식과 교양, 교육을 다 받고 잘못된 거 잘된 거 알게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벌써 근본적으로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태어 그런 말은 안 해도 좋지만, 사회에서 사시는 분들은 사회에 계율이 있고 질서가 있고 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님들이 사는 도량에는, 도량은 여러분이 사는 데나 우리 스님들이 사는 도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도량 하면 천 우주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절 도량에서 사는 스님들도 스님들대로 계율이 있고 그렇지만은, 그 계율을 무시하고 공부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 계율도 거기에 근본적으로 밸런스가 맞아가지 만약에 맞지 않는다면 그건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근본적으로 상식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절에 들어가면 절의 계율을 지켜야 하고, 틀에 나가면 틀에 나가는 대로 계율을 지켜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계율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도 어느 회사엘 들어가거나 한다면 거기 계율은 없습니까? 모든 계 계율은 제가끔 받고 있기 때문에 계율이 따로따로 있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는 지금 계율을 지키고 살고 있는 겁니다. 차를 피한다, 차 속에 들어가서 말라니깐 우리가 안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죽을까 봐 안 들어가요. 그런 저절로 그렇게 돼 있죠? 차가 오는데도 무조건 내가 차 속으로 들어가지 않죠? 차를 피해서 내가 갑니다. 그것이 바로 계율이에요, 근본적인, 집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더러운 것은 좀더 흘리고 깨끗하게 씻고 다 들어 놓는 것도 계율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계율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는 것이 계율에 의해서 올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행한다 이 소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더러 자기 길에 나가서 강도질을 한번 하라고 그래도 못해요. 안 그래요?

계율을 그렇게 지키지 않는다고 하기 이전에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 이걸 떠나서 우리는 계율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태어 '계율이다, 아니다.' 그런 말을 붙일 필요가 없죠. 그리고 계율에다가 딱 얽매어 놓는다면, 그건 독재예요! 자유 계율이 아니라 독재! 이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계율 속에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강제 계율 속에서는, 마음이 자유스러워야지, 노동을 하면서도 죽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자유스러워야지 공부도 되는 거지 강제 계율을 받으면서 어떻게 공부가 됩니까?

그리고 식탐을 가지지 마시라고 한 것도 그것도 역시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외로워야 하고 고독해야 하고 배고파야 하고 어마 기밀 데도 없을 때에 자기의 생명수를 출연히 맛을 보는 거지, 배서 같이 먹고 살자고 이렇게 화목하게 해 나간다면 어느 누구가 그 마음을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만도 아마 귀신의 마음도 그래서 한마음이 돼 줄 겁니다.

그러하니 이것은 말을 붙이기에 달려 있는데 그래서 한마음이 돼 줄 겁니다. 그러하니 이것은 말을 붙이기에 달려 있는데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크게 사업하는 사람이나 또 작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여러 사람을 데리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바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해 농사를 잘못 지으면 추수해 들일 게 없어요. 그렇듯이 내 자식들의 농사도 잘 지어야 하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과도 추수를 해서 잘 거둬들여야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안 꾸꾸로 노력을 하시라 이겁니다.

30면으로 계속

